

실화냐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화작의 기본적인 개념,
마인드와 함께 7개년 실전연습까지
20일만에 끝내는 유일한 책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지환[나국어] 지음 김지호 편집

실전
화작
풀어봤냐

나 국 어 인 사 말

‘과외생들 복습동영상이나 주자’ 하고 만든 유튜브 해설 썩히는게 아까워 올리면서 활동 시작한 게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외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도 많이 듣고 ‘열정페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대가 없는 투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하고 벅차기도 하지만 도움받고 있다는 말들 하나하나가 힘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실화냐'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여러분께 받은 관심과 감사 인사가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자책으로도 출시하게 되었네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칼럼,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윤지환—나국어 지음

1 | 피램N제 공동저자

2 | 실화냐 저자

3 | 2018~2020 모의고사 고정 1등급

4 | 주간 Wepi 저자

5 | 피램 콘텐츠 제작팀

010-5691-5561 과외 문의 연락주세요

실전 화작 풀어봤냐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지은이 | 윤지환[나국어]

편집 | 김지호

실화냐 목차

0

목차

나국어 인사말

0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2
1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3
2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07

1

목차

01 유형별 화법 개념	018
1 대화	019
2 인터뷰	022
3 토론, 협상	025
4 면접	028
5 발표, 연설	029

2

목차

02 유형별 작문 개념	032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034
2 소개하는 글	034
3 설득하는 글, 건의하는 글	035
4 성찰하는 글	036

3

목차

03 시험 전략 및 공부 방법	038
1 화자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039
2 지문을 읽으며 선지를 예측하는 법 + 노트 공부법	040
3 애매한 선지 넘기기	042
4 답 나오면 짚고 넘어가기	042
5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042

4

목 차

0 4 실전 연습 문제편		044
2015학년도	06	046
	09	050
	수능	054
2016학년도	06	058
	09	062
	수능	066
2017학년도	06	070
	09	074
	수능	078
2018학년도	06	082
	09	086
	수능	090
2019학년도	06	094
	09	098
	수능	102
2020학년도	06	106
	09	110
	수능	114
2021학년도	06	118

5

목 차

0 5 실전 연습 해설편		122
2015학년도	06	125
	09	135
	수능	145
2016학년도	06	155
	09	163
	수능	171
2017학년도	06	181
	09	191
	수능	201
2018학년도	06	211
	09	219
	수능	229
2019학년도	06	237
	09	245
	수능	253
2020학년도	06	263
	09	271
	수능	281
2021학년도	06	289
	빠른정답	298

시작하기에 앞서

" 화작은 어떻게 공부해요"
" 화법 풀이 시간은 어떻게 단축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비문학처럼 읽고 푸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독서 파트의 지문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서술·문장이 수두룩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를 치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화법과 작문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화법과 작문도 그저 잘 읽으면 잘 풀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화법·작문·독서는 같은 줄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평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출제자가 고려하는포인트도 다릅니다.
이는 <0. 화법과 작문의 본질>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풀 때,
‘화법과 작문’처럼 풀어야지, ‘비문학’ 처럼 읽고 풀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화법과 작문’을 ‘화법과 작문’답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장담컨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만큼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수능날 편안하게 화작 10분 컷을 한 채로 문법을 풀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제 칼럼을 통해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을 이루어 낸 만큼,
제 방법이 맞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하나 이상 틀린다면, 13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당신이 화작 공부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화작에서 [3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필연적으로 비문학 <보기> 문제를 맞히어야 합니다.
어느 파트가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파트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다음 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봅시다.

실 화 나 목 차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사랑은 수천 마일을 움직일 수 있다.
인생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이루고 싶은 위치까지 도달하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손에 달려있다.

-스티브 잡스

01 |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02 |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실 화 나 7 개 년 화 작 실 전 해 설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다음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서>에 적힌 화법의 학습방법입니다. 이를 ‘독서’의 경우와 비교해봅시다.

1)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고려하기
3.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기
4.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기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3.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4.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독서의 경우와 달리, 화법은 지문에 쓰여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라는 요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의 ‘담화 상황’, ‘화법 내용’, ‘화법 방법’을 고려해야 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화법에 쓰여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우려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화법**’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법’은 무엇인가?

화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모든 방법>을 뜻합니다.

즉, 수학능력시험에서 화법 영역은 ‘말하기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영역이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일차’를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가원은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말하기를 하였는지 평가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 측면도 출제될 수 있지만, 그 말하기 상황의 **핵심(=주제)**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출제합니다. 토론·토의·협상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죠.

항상 담화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핵심정보**와 **세부정보**를 구분하여 독해해야 하며, **출제 포인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봅시다.

지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지만 한 번 살펴보세요.

꼭 선지를 읽고 다음 설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2015 / 06 - 면접

1.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였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였다.
- ④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 ⑤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2016 / 06 - 토론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화법과 같이 작문도 엄연히 비문학과 다릅니다. 아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적혀 있는 작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문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독해봅시다.

그 후 지금까지 작문을 풀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광펜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작문이란?

가치있고 진실한 내용, 참신한 내용을 성실하게 쓴다. 표현을 간결하게 하며 지나치게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개성적인 문체 곧 글쓴이의 성격과 인격, 경험 등이 나타나야 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신선감을 갖게 한다.

글을 쓸 때에는 ②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단어, 문장, 표현법 등을 선택하여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쓴다.

좋은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 글이다. 그 요건은,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짜임새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 표현이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독창적인 표현, 문법에 맞는 글,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 주제의 결정: 무엇을 쓸 것인가,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곧 주제를 결정한다.

제재의 수집: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서 ④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글의 재료를 모은다. 특히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참신한 것이 좋다.

내용의 조직: 제재를 어떻게 배치하고, 줄거리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등을 생각한다. 그 주요 방법으로 자연적 구성과 논리적 구성이 있다. 자연적 구성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⑤ 시간적, 공간적 순서대로 전개하는 방법이다.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 사건의 전개과정 등을 쓸 때 효과적이다. ⑥ 논리적 구성은 글쓴이의 의도대로 논리적으로 문단을 배열한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적절하다. 3단 구성, 4단 구성 등이 있다.

⑦ 집필: 서두쓰기, 본문쓰기, 결말쓰기, 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한다. 서두는 글의 첫머리 부분이다. 독자에게 글의 방향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여 주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쓴다. 본문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이며 서두에서 제시한 내용이 짜임새 있게 펼쳐지는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말은 글의 끝마무리 부분이다. 서두와 본문 중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인다. 고쳐쓰기는 글 전체에서 말하려는 주제와 서술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일이다.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덧붙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효과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서 글의 순서를 새롭게 구성하는 다시 짜맞추기 등이다.

작문은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 포인트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2.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 설명할게요.

번호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유형별 화법 개념

상어는 물고기중 유일하게 부레가 없다.
부레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조금만 바다 속에 머물러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고 만다.
상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 상어는 바다의 절대제왕으로 거듭났다.

- 도서 '유대인 생각공부(썬 지음)' 중에서

- 01 | 대화
- 02 | 인터뷰
- 03 | 토론, 협상
- 04 | 면접
- 05 | 발표, 연설

첫 번째 형광펜을 보니 토론의 **논제(=주제)**를 알 수 있군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협상, 토의, 토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참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에도 집중해야 하죠.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납득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논의범주**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죠.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광펜을 보며 정리해볼까요?

찬성 측 주장 및 근거

- 인간관계 확장
- 삶의 만족감
- 문화 실천의 주체

반대 측 주장 및 근거

- 배타적 경향 → 편협한 이기주의
-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 → 중독 현상
- 문화 실천의 주체 X (찬성 측 근거) → 수동적 소비자
- 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의 사회적 몰약

반대 측의 마지막 근거에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모와 삼촌에 대한 얘기는 **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법과 작문은 **주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유형별 작문 개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호흡을 할 때 멀리 달리지 못하다가
어느새 두 번째 호흡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꿈을 실현하는데 쏟아 부어라.
그러면 자신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 윌리엄 제임스

- 01 | 정보를 전달하는 글
- 02 | 소개하는 글
- 03 | 설득하는 글, 건의하는 글
- 04 | 성찰하는 글

유형별 작문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읽고 계신 이 부분이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문은 대체적으로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에서 작문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 유형별 작문 개념>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각 유형에서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려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작문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작문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습니다.~~가 아니라 정보가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작문은 정보가 많아 보일 뿐 모두 **세부정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문에 서술된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단의 **핵심정보**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말은 **핵심정보**라고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단을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단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를 실행하려면 B를 설정한 후에 C를 클릭하고 D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결국 <A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B, C, D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변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문학이 아니니까요. 문단의 화제를 잡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문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정리해봅시다. **문제 포인트**는 <0.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문제 포인트>에서 모두 정리했으니까요.

1. 글의 주제 및 목적 파악
2. 예상 독자 고려
3. 작문 계획과 초고의 비교 (작문 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정말)
4. 세부정보 버리기 → 핵심정보 파악
5. 자료의 적절한 활용

다음 페이지부터 진짜 유형별 작문 개념을 살펴봅시다.

시험 전략 및 공부방법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타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

- 01 | 화작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 02 | 지문을 읽으며 선지를 예측하기 + 노트 공부법
- 03 | 애매한 선지 넘기기
- 04 | 답 나오면 찍고 넘어가기
- 05 |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화작 융합 유형에 대한 코멘트

제가 현역이었던 2018 / 6월부터 4~7번까지 묶여서 화법과 작문이 결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화작이 결합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신유형을 대비해야해!'라는 듯한 여론이 생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신유형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어냈던 저에게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유형인지도 모르고'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출분석을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나오긴 했구나...'라고 느끼긴 했지만

최근 화작을 풀어봐도 이전 신유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유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2020 / 9월에는 통합형도 나오지 않고 다시 단일형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원도 아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냥 통합 유형은 화법 지문 하나랑 작문 지문 하나를 합쳐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유형에 대해 '신유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유형이 아니라 그저 두 유형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융합 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 (나)로 지문이 나뉘어 있을 때 둘을 연계하여 독해하는 것입니다. (가)에 서술된 내용이 (나)에도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문제로 출제될 것입니다.

(가)에서 토의한 작문 계획을 바탕으로 (나)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가)의 초고를 (나)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의 경험에 대해 (나)에서 소감문을 작성할 수도 있구요. 필연적으로 두 글은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점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면 기출이 아까우니, 이는 <4 & 5. 실전연습>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융합 유형이 신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풀이 순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를 읽고 (가)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풀고, (나)를 읽고 (나)에 대한 단독 문제를 푼 후,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세줄 요약

1. 화법과 작문 융합 유형은 신유형이 아니다.
2. 풀이 순서 : (가) 단독문제 → (나) 단독문제 → (가), (나) 융합 문제
3. (가)와 (나)는 연계해서 읽자!!!!

실전 연습 문제편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바라는 부분이 진화되어 왔다.

말은 빨리 달리고 싶어 해서 빨라졌다.

새들도 날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물갈퀴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앨버트하버드, '인생의 서른 가지 질문에 대한해답' 중에서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팥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청자 1: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2와 청자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A]

[B]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⑤

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 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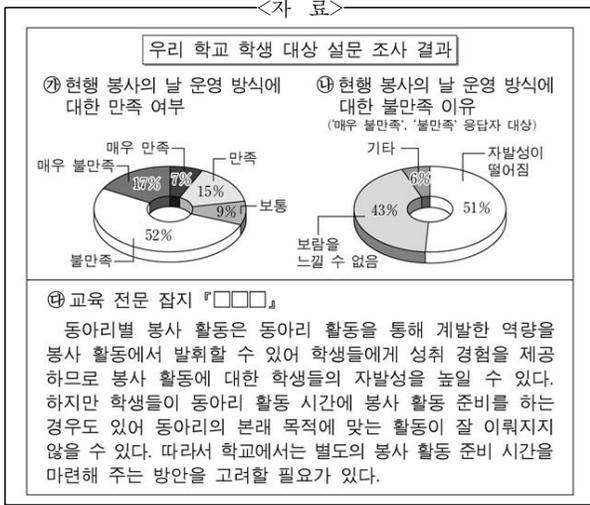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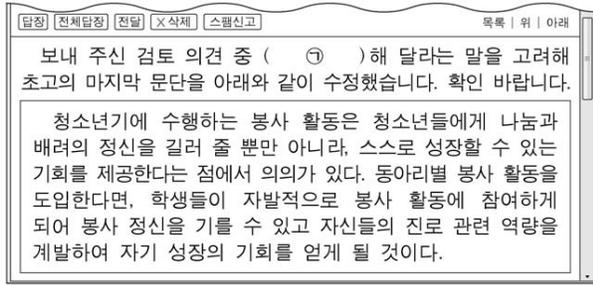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㉘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㉗과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㉗과 ㉘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실 화 나 목 차

5

실전 연습 해설편

자신이 성공하는 내면의 그림을 마음속에 명확히 그리고
지울 수 없게 각인시켜라.
이 그림을 끈질기게 간직하라. 절대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이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신의 상상속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마라.

- 노먼 빈센트 필

5. 실전 연습 해설편

<실전 연습 해설편>

아래 순서에 따라 공부하세요.

- ① 10분 재고 1~10 까지 '문제' 파트를 푼다.
 - ② 해설을 보기 전에 지문을 다시 보면서 '화법 개념', '작문 개념'에 맞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치세요.** 선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③ 빠른 답지가 없으므로 꼭! 해설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 ④ 해설에는 지문, 선지 해설 모두 있습니다.
 - ⑤ 제 해설과 스스로 잡은 포인트를 비교하면서 사고를 교정해 나가세요!
 - ⑦ 답 선지는 밑줄 표시되어 있습니다.
 - ⑧ 꼭 **형광펜 분석** 혹은 **노트 정리**까지 하세요! 스스로 해보지 않고 해설만 읽고 넘어가면 **실력 안 늡니다.**
- **노랑 형광펜** -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본질, 출제 포인트, 핵심정보)
 - **빨강 형광펜** - 약하게 **읽어도 되는 세부정보**

[1~2]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부터 체크하는 게 좋겠죠? 주제는 수라상입니다. 한편,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네요. 선지로 낼 수 있으니 체크하는 게 좋겠죠? 또한 우리도 발표 순서가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수라'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로 낼 수 있겠죠? 또한 시각 자료를 사용해서 수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에서 말해줬듯이 수라상의 상차림부터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표자가 시각 자료를 '왜' 사용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시각 자료의 내용 자체보다는 말이죠. 시각 자료를 통해 **수라상의 상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반, 소원반에 흰밥, 탕 등등이 있다는 **세부정보** 따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원반, 소원반, 화로가 수라상의 상차림에 포함되었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실 기억할 필요 없는 세부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라상의 상차림**에 대해서만 주목하면 되기 때문이죠.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이번 문단에서는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에 주목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식사 횟수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 자료부터 살펴봅시다.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죽, 면, 식혜 등도 말이죠. 2문단에서 대원반, 소원반, 화로 정도를 기억하자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각 자료

를 통해 식사 횟수가 다섯 번이라는 점을 안내했다는 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청중에게 질문(소통)했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시각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봅시다. 이번에는 **왕의 식사 장면**에 주목해서 읽으면 되겠죠? 왕이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했다는 정보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생선을 발라드렸다는 정보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궁의 시중'이니까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당연히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를 발표하겠죠? 주목합시다. 민간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였다는 정보는 세부정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참고자료**를 언급함으로써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군요.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의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 ①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 ② 내용 요약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미리 체크했어야겠죠?
 - ③ 청중에게 질문했었죠? 예측했던 선지입니다.
 - ④ '수라'의 정의를 설명했었죠?
 - ⑤ 발표 순서와 내용을 대응하며 읽었습니다.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상을 제시하였다.

시각자료의 활용 방식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시각자료의 활용에 대해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주제에 맞는 핵심정보**를 기준으로 시각 자료를 ‘왜’ 활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각 자료의 모든 세부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18학년도 9월이나 이번 지문에서 읽는 법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조리하는 과정이 아니죠? 상차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 = 상차림이죠? 틀리지 않았네요.
- ③ 식사한 시간이 아니라 식사 횟수를 설명하는 게 목표였죠?
- ④ 간단히 차린 이유를 식사 횟수로 바꿔야겠네요.
- ⑤ 차리는 과정이 아니라 왕의 식사 모습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자 1 :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청자의 반응에 대한 문제는 선지를 읽고 <보기>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①번을 읽고, 청자 1을 보고.. 이런식으로 말이죠.

청자 1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좋대네요. 충분히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선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청자 2 :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를 보니,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발표를 들었다는 선지가 나올 수 있겠군요. 또한 참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자 3 :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를 보아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좋داث었죠?
- ② 참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의심 = 의문! 맞네요.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 =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충분히 인정 가능한 선지입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자면,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이라고 추론하고 있네요.
- ④ 청자 3은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디다. 틀렸네요.
- ⑤ 배경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활동 1'을 읽어보니 토의의 주제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일 것 같군요.

(가)

현지 : 오늘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현지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로서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토의를 진행하고 있군요.

민호 :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나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민호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행복의 조건을 '내적'과 '외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A]

영수 :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라 하네요. 즉,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민호 :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요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민호도 영수의 의견을 인정하네요.

현지 :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현지가 사회자로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토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군요.

민호 :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번에는 민호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봅시다.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생의 처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으니깐요.

영수 :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영수도 행복의 조건이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허생의 처'의 내용을 인용하며 생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하네요.

현지 :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현지는 다시 한번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호'가 '활동 2'에 따라 쓴 글입니다. 성찰하는 글이므로 민호가 느낀 점을 (가)를 바탕으로 연계해서 읽어야겠네요.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토의를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가)의 토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꼭 (가)와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

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민호가 깨달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역시 토의를 바탕으로 글이 구성되니, 토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잊으면 안 됩니다. 토의에서 다루었던, <생계에 대한 부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모두 서술되어있네요. 새로 기억해야 할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토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모두 재진술 됐을 뿐이네요.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인 '부'가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군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했다는 것은 모두 세부정보죠? 문제 풀러 갑시다.

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현지는 사회자죠? 현지가 사회자로서 한 일을 체크하면 됩니다.
 ㉠ 토의 주제를 안내해 줬었죠? 기억 안 나시면 첫 부분으로 가세요.
 ㉡ 사회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발언자를 지정해주진 않았습니. 앞으로 사회자가 발언자를 지정해주면 체크해야겠죠?
 ㉢ 이것도 물론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선 없었죠?
 ㉣ 현지가 계속해서 요약해줬습니다.
 ㉤ 중간에 토의의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틀리지 않네요.

③번이 답입니다.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B]에서는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구요.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선지를 풀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A]에 대해 묻는 선지는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반박했는지>, [B]에 대해 묻는 선지는 <영수가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는지>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① 영수가 반박했다는 방향의 선지는 맞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 ②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수용했다? 틀렸습니다.
- ③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다? 틀렸습니다.
- ④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선지의 의견은 맞네요. 그렇다면 보완하는 의견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민호는 '생계적 부담'을 주장했고 거기에 영수는 '가족간의 소원한 관계'를 추가했네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 ⑤ 영수가 민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틀렸죠? [B]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⑤

(나)는 (가)에서의 토의 후 자신을 '성찰'하는 글의 초고였죠? (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확인해봅시다.

- ① 1문단에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드러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 ② 허생의 처의 행복의 조건을 '부'로 봤던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바뀐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 ③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썼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 ④ 그동안 '부'와 같은 외적 조건을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 ⑤ 민호는 '생계 부담'과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를 주된 이유와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지 않았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결국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죠.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쓴 것은 맞습니다.

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와 같은 외적 조건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민호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겠네요.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것 역시 외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겠네요. '물질적 풍요 수준 = 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니까요.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세요.

-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① 우리가 찾는 포인트와 어긋납니다. 외적 조건 외에도 행복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 ② '부'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중요하다는 선지가 필요합니다.
 - ③ 우리가 찾던 선지네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선지입니다. 자료 활용도 적절하구요.
 - ④ 역시 '부'만 강조한 선지입니다.
 - ⑤ 그럴듯한 선지이지만, '부'를 추구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 또한 ㉡, ㉢도 그러한 내용의 자료가 아니구요. '그렇듯'한 선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글의 **주제**는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전환하자’네요. 설득문이고, **예상 독자**는 **학교 구성원**입니다. 어떻게 **주장**하여 설득하려 하는지를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했다는 것은 **세부정보**죠? ‘학급별’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급별 봉사 활동’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제**니까요. 1문단은 **주제**가 논의된 **배경**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핵심정보**네요. ‘환경 정화 활동’은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글의 **주제**인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이 문단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 이후에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을 얘기함으로써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네요. 장점을 살펴보면,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봉사 활동’이

있군요. 중간에 나오는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는 **세부정보**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요.

한편, 마지막에 **예상되는 반박**을 언급하고 있군요.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의 의의’와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의 의의’를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그 전에 **주제**를 확실히 잡고 읽은 학생이라면 ‘청소년기의 의의’는 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① 논의의 배경이 드러났었죠? 틀리지 않았습니까.

② 글의 목적은 ‘봉사 활동 운영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③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④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은 나올리도 없고,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와 완전히 어긋난 선지죠?

⑤ 설문 조사 문항은 제시하지 않았죠? 조사 대상인 학급 학생들은 제시했지만요.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㉑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

㉒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응답자 대상)

㉓ 교육 전문 잡지 『○○○』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봉사 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 활동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에 대한 자료네요.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획일적인 방식의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비해 동아리별 운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해결방안도 서술되어 있네요.

- ① ㉑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㉒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㉒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㉑와 ㉒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㉑와 ㉒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또다시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줄글로 된 ㉑를 먼저 읽고, ㉒·㉓는 선지를 읽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① ㉑를 보니, ‘매우 불만족 + 불만족’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 ② ㉒를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도 43%나 응답한 것으로 보아 추가할 수 있겠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 ③ ‘일부 학생들의 우려 = 예상되는 반박’이죠? ㉓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 ④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현행’ 방식이 아니라 ‘동아리별’ 방식이죠? 확실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또한 ㉑는 만족 여부를 나타내는 설문 조사 결과이지 그 ‘이유’를 드러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 ⑤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 = 자발성이 떨어짐’이죠? ㉒에서 보면 성취 경험을 통해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선지를 꼼꼼히 판단하세요.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록 | 뒤 | 아래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㉑)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고 자신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개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①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마지막 문단에 대한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정확히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아내면 되겠네요. 비교해 봅시다. 이미 지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첫 문장으로 올라가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추가되었네요. 이것들이 반영된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 1. ‘청소년기 의미’의 삭제
- 2.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후의 기대효과

이 두 가지로 선지를 걸러냅니다. 일단 항상 하던 대로 1번부터 판단해봅시다.

- ① 있습니다.
- ② 있습니다.
- ③ 있습니다.
- ④ 없네요.
- ⑤ 없네요.

이제 2번으로 답을 결정해 봅시다.

- 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첫 문장으로 위치만 바뀌었죠? 예민하게 선지를 판단하세요.
- ② 기대 효과! 맞습니다.
- ③ 지원 방안은 기대 효과가 아닙니다. 틀렸네요.

답은 ②번입니다.

빠 른 정 답

2015	06	45155	24441
	09	24353	23453
	수능	12153	44354
2016	06	15431	35323
	09	53534	25332
	수능	42521	12543
2017	06	31512	45523
	09	12554	43353
	수능	24445	42553
2018	06	34124	41255
	09	25241	42553
	수능	22434	53142
2019	06	22551	54523
	09	25124	45334
	수능	13344	53222
2020	06	42252	42353
	09	35144	24443
	수능	43152	24341
2021	06	15435	33321

“

고정 1등급은 실전에서 화작을 어떻게 푸는가?
화작 10분 컷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